

사료공급은 호전되고 있으나 가격과 생산성이 문제다.

— 홍 보 부 —

암울하고 고통스런 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계산업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양계업에 대한 일가견이 있었다던 전문가들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고 계열화다, 시설자동화다 하며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살아남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입개방의 장벽을 넘어 보려고 선전분투 했던 양계업자들만 남아 자탄과 한숨을 지으며 덩치커진 계사만 바라보는 요즘 옆친데 덮친 격으로 사료공급마저 중단설, 인상설까지 난무하여 양계인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느 농장, 어느 사료회사 심지어 약품, 기자재 할 것 없이 부도설이 유행어 처럼 번지며 그런대로 버틸 수 있는 농가마저 거래 회사나, 은행에서 믿을 수 없는 놈(?)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고서야 참담함을 깨달았다는 양계인의 이야기가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

사실 근거 없는 소문은 없다지만 내막을 파고들어 가면 소문이 와전되어 화근을 초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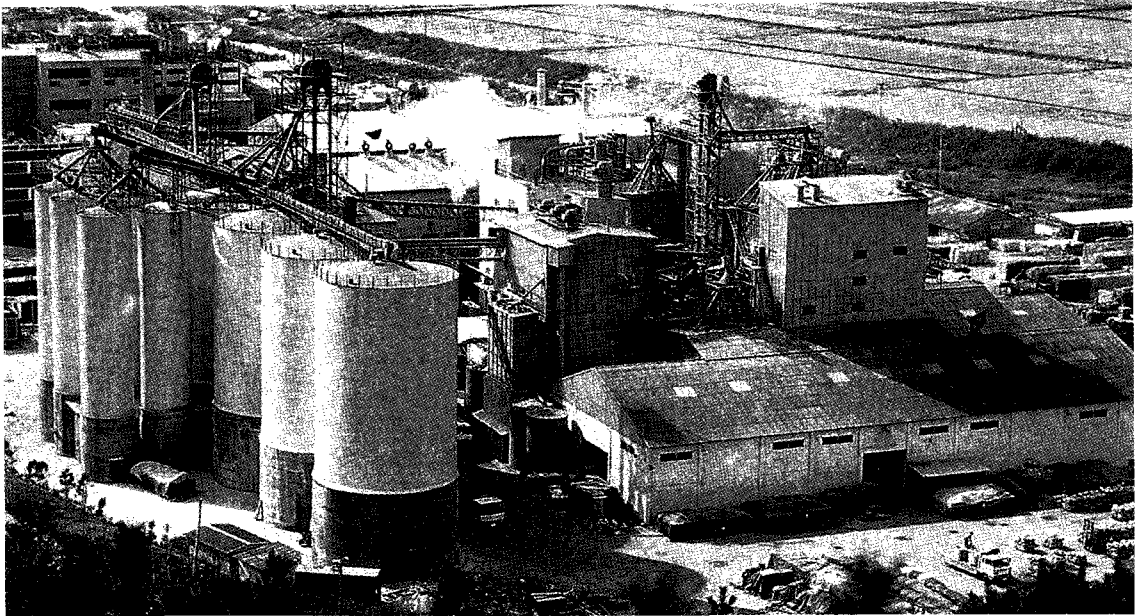
경우도 많다.

양계인들이 가장 염려하는 사료공급의 실상을 주의깊게 관찰해 보면 대개는 영업 전략상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업살이 산재해 있음이 흔히 발견된다.

사료원료의 경우 1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금년 3월분까지는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더러는 4월분까지 원료확보가 된 곳도 있다는 귀뜸이다.

문제는 가격의 변동이다. 이미 지난해 12월까지 인상한 사료는 대개 환율이 1,400원대에 맞추어 계산을 했고 일부는 결제시기를 잘못 맞추어 이보다 높은 환율로 지불을 하여 추가 인상이 안되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나 빠르면 2월, 늦게는 3월부터 1개월의 차이는 있지만 이때 공급되는 사료원료는 1,600원대에 결제가 된 것들이어서 8%선의 가격 인상요인은 이미 예고가 된 셈이다.

다시 환율이 1월말 현재 1,700원대로 상승하자 사료업계는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좀 불안한 상태라 볼 수 있다.

지난해부터 수입 신용장 개설이 안되어 사료 가격은 고사하고 원료수입의 길이 막혀 공급 중단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상황은 서서히 개선이 되어 농협이나 축협을 통하여 우선 급한 불은 껐기 때문에 그리 염려할 바는 아니라 여겨진다.

지난 연말부터 사료업계가 요청한 GSM-102 (미국농산물 수출촉진 자금)기금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요청을 하여 10억불이 이미 지원확정되어 이 예산 가운데 우선 4억불에 대한 사용승인이 끝난 상태인데 단지 우리 양계가들이 알고 있었던 GSM-102기금이 전량 사료원료구매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농산물 수출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사료원료 외에도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 임산

물, 비누 원료용 우지까지 수입하는데 활용이 가능한 기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요청은 사료업계에서 하였지만 10억불 가운데 정작 사료원료 구매 자금으로는 2억5천만불 뿐이다.

GSM-102 자금 내역을 보면 총 10억불 가운데 면실 2억불, 옥수수와 대두박 3억5천만불, 대두 1억불, 소맥 1억5천만불, 육류를 포함한 기타 농산물 1억불로 나뉘어져 있다.

옥수수의 경우 12월말 톤당 가격인 130불로 계산할 때 2백7십만톤에 해당되어 약 5개월분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생각하기에 따라 양은 적을 수도 있고 많다고도 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이미 확보한 양에다 추가로 GSM-102자금을 이용하여 수입될 양까지 계산하면 적어도 금년 6월까지의

사용량은 확보했다고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권에서도 L/C개설이 점차 호전되고 있어 현재로 볼 때는 이번이 없는 한 사료 원료의 수입 중단 사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사료업계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보면 가격 변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배합사료 공급은 중단 없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가격면에 있어 옥수수를 포함한 일부 원료는 아시아권의 구매기피로 가격이 하락한 것만은 사실이나 소맥, 면실, 대맥가격이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보면 원료가격의 변동에 의한 가격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행히 이번에 이용하게 될 GSM-102자금은 지급유예기간이 최장 24개월이고 금리도 리보(약 5.6%)에 0.5%가 추가된 정도여서 이를 활용하여 원료를 구매하는 배합사료 제조업체들은 환율이 변동된다고 무조건 그때 그때 가격에 반영한다기 보다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양축가들이 어느 정도 인상 폭을 흡수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자세를 하려는 고통분담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양계인들도 지난 12월을 통해서 1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반성을 해야 한다.

사료공급에 차질이 있다하니까 나는 얼마든지 사료구매가 가능하다는 자만심이 저마다 발동하여 결국 소비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정상적인 소비하에서의 생산수준을 유지하여 물가 잡는데 일조를 했을지 모르지만 적자 폭이 커서 도산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반성을 해야 한다.

사료가격이 상승하면서 육계 생산비 중 사료비는 52%를 점하는 수준까지 올라갔고 계

“

우리 양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육량 중 30% 이상을 감산해도 과잉이 될 수도 있음에 비추어 과거 수준을 유지하면서 누가 먼저 얼음이 깨져 추운 물속으로 빠질 것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이요 국가경제 위기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함을 스스로 깨달았으면 한다.

”

란도 66%까지 상승하여 생산비 절감 폭에 따라 소득액은 계산하기 어려울만큼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과신한 나머지 생산량을 늘리는 바람에 출하가격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개가 생산비선 이하에서 맴돌고 말았다.

이대로 경기가 지속된다면 금년 3월의 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양계 농가가 얼마나 될까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

차도 줄이고 외출도 삼가면서 종업원까지 줄여 경영합리화를 꾀한다한들 430원대의 병아리를 100원대에 계속 판매를 한다면 금이가고 있는 얼음 위에서 요동을 치는 격과 다를 바가 없다.

예컨대 경영구조가 계속 악화되어 신용도가 하락하면 경기가 앞으로 호전될 기미를 보인다고 해도 사료나 기타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하여



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가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사료업체들은 양계농가들의 주머니 사정, 즉 통장의 잔액상태까지 꿰뚫고 있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어떤 회사는 거래농장별 재무상태와 신용정도에 따라 경기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등급에 의거 공급조정을 해나갈 계획까지 수립했다는 후문이다.

지금보다 더 현금을 강도 높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보면, 결국 현금이 없으면 당연히 기업 근로자와 같이 양계업체에서 자울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닌 타울에 의한 구조조정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차디차고 냉엄한 시장경제원리가 이미 양계업체에도 찾아오고 있는 징후가 아닌가 생각해 볼 일이다. 소비시장은 비공식 집계로 약 30% 이상이 위축되었으며 소비자 가격은 판매처의 수익감소를 매우기 위해 인상이 되고 있어 소비는 더 나아질 요인이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사료 공급이 원활했던 과거에 비해 환율폭등

으로 공급사정이 나빠지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겠지 했던 생각이 어느새 통장에 있던 현금 액수를 갉아먹고 언제 부실농가로 규정되어 정리될지 모르는 우를 범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왜 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사료수급 사정이 나아진다고 양계경기가 곧 호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양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육량 중 30% 이상을 감산해도 과잉이 될 수도 있음에 비추어 과거 수준을 유지하면서 누가 먼저 얼음이 깨져 추운 물속으로 빠질 것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이요 국가경제 위기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함을 스스로 깨달았으면 한다.

현재 양계업에 종사하는 양계인들이 도산하여 물러나면 일시 생산이 줄어 가격 상승과 함께 또 다른 자본이 들어와 자리를 메우기 때문에 서로가 먼저 포기해줄기를 바라는 식으로 난관을 넘기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현재 양계업의 주인 즉 주체는 현재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양계인들이다. 사료공급에 변동이 생겼다고 사료부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비시장에 맞추어 적정생산을 이끌어 내려는 동업자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여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한 후 다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자율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한 건설적인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用). 양계